

“수변도시, 새만금 배후도시로”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성료

2만여명 방문객 축제 찾아… 맥주·지역 먹거리·공연 등 ‘만객’

맥주와 음악이 함께하는 여름밤의 축제,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에는 군산 보리맥아로 만든 ‘군산맥주’ 외에도 중국, 대만, 일본 등 교류 도시의 맥주 업체도 축제에 참가해 다양한 맥주를 한 번에 맛볼 수 있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요일 저녁에 막을 올린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 간간히 뿌리는 빗속에서도 친구, 연인들과 맥주 및 지역 먹거리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행사 시작부터 축제장이 가득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이어 군산의 이웃 도시인 서천의 김기웅 군수가 직접 축제장을 방문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동영상을 통해 군산 수제맥주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개막식의 뜨거운 열기는 군산시가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반지임을 선포하는 개막 퍼포먼스와 함께 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계속된 블루스 공연에서는 3일간 16개 밴드가 참여하여 블루스의 진수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특히 축제 기간중 마지막 공연은 한영에 밴드, 체리필터, 박완규 밴드가 각각 화려한 공연을 보여줘 즐거움을 더했다.



올해 축제에는 군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음식 부스와 기념품 부스 외에도, 관람객들이 닥트 게임, 해머 게임, 사격게임 등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군산 게임왕 존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맥주 축제로서 위상을 굳건히 했으며, 군산맥주와 블루스 음악을 잇는 복합 문화콘텐츠로 군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편 올해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 3일간 행사 기간 중 2만여명의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아 축제를 즐겼다. /군산=김만호 기자

정현을 시장, 익산시의회 시정질문서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방안 발표

“새만금 직선도로·유람선 선착장 조성 등… 관광·정주 여건 개선”

익산시가 조성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가 새만금 배후도시의 중심축이자 전북권 대표 거점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관광자원과 교통망, 정주 환경을 아우르는 도시 구상에 민간 투자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3일 열린 제270회 익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충영 시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수변도시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검토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개발 여건도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새만금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육로와 수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 직선도로 건설을 제안했고, 만경강 뱃길 복원사업 관련 용역은 진행중”이라며 “2027년 새만금신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소형 유람선을 통해 새만금~익산 간 수로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새만금신항~춘포 구간 만경강 뱃길 복원을 통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주요 역사 문화 명소를 둘러보는 전북권 통합 관광코스를 실현하



는 구상이다.

또 정 시장은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익산시는 한발 앞서 개발 기반 여건을 확실히 마련해왔다”며 “수변도시 사업은 산재병원 유치 등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변도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변도시 개발은 10여 년만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모현지구 배산 택지개발 이후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정주 여

건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있어 온 만큼, 그 감증을 해소할 상징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변도시는 강변 조망을 갖춘 타운 하우스형 단독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전원형 저밀도 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실제 전주·군산·김제 등 인접 도시와 수도권 시민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67.4%가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5명 이상이 입주의사를 밝혔다. 이는, 향후 분양과 정착 가능성도 긍정적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주요 현안 관련 열띤 시정질문 펼쳐

박종대·김미선·소길영·김충영 의원… 시정 현안 점검·대안 마련 요구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박종대 의원은 광역상수도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청했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익산시의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수습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인 KTX 익산역 복합개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김미선 의원은 최근 송학동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질적인 성장은 더디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염원하는 근린공원의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등 사후관리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길영 의원은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대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실질적 성과, 지붕이 설치된 창고형 집하장 도입 계획, 영농폐기물 수거 지침의 실효적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익산시는 식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중심, 시설 중심의 운영에 머무는 뿐 시민

들이 체감하거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표 먹거리 콘텐츠 개발 등 개선 계획, 시민 참여형 식품 프로그램 확대·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충영 의원은 배산공원 매입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고, 관공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난을 지적하면서 설계 시부터 고려하여 주차면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현을 시장의 민선 7, 8기 공약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익산역 광역복합 환승체계 구축사업 등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되짚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했으며, 금곡과 임으로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 가동

기초수급 중지 2000여 가구 대상, 상황별 맞춤 지원 방침

익산시가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본격 가동하며 복지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점검과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66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상황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에는 공적 급여 재신청을 안내했다. 주거·채무·고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집중관리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열린 ‘공공부문 사례관리 유관기관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담당자 간 네트워크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정신건강 전문의를 초빙해 정신질환의 주요 증상과 위기 징후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에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정신건강 상담기술’을 익히게 된다.

이번 교육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안정광 교수가 진행하며,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기 상담 기술과 소통 방식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시는 앞으로 통·리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간 인적자원을 대상으로도 정신건강 위기 대응 교육을 함께 추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국방부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육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군산 비행장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장 조사 및 의견합의를 거쳐 최종 조사지점을 결정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사지점 최종 선정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소음 영향도 조사 전 과정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 29일 소음 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됐으며, 군산시는 육서면·미성동 등 36.6㎢ 지역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 모집

군산시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위해 여는 ‘2025년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자체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군산시는 총 10개소 내외의 소상공인을 선정해 상인 교육 등 전반적인 온라인 판매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29일 오후 6시까지 전자 우편(gcdrf@naver.com) 및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군산공설시장 3층)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063-443-8200)으로 문의하거나 군산시청 및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